

# 청년 창업 보금자리 '곡성 스테이션 1928' 준공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도·군비 136억원 들여 조성 오곡면 폐교 리모델링 교육·체험·거주 거점공간 들어서



곡성 생활인구를 늘릴 체류형 복합거점공간 '곡성 스테이션 1928'이 오곡면 옛 오곡초교 부지에서 준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곡성군 제공>

청년 창업 준비와 교육·체험을 도울 체류형 복합 거점공간 '곡성 스테이션 1928'이 27일 준공됐다. 곡성군은 이날 오후 2시 곡성군 오곡면 옛 오곡 초등학교 부지에서 곡성 스테이션 1928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폐교를 활용해 교육, 체험, 거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2만 5000㎡ 부지에 숙소 등을 갖춘 스튜디오 1동, 웰컴센터 2동, 창작공간 1동 규모로 지어졌다.

곡성 스테이션 1928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공모해 지원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다. '스테이션 1928'은 곡성 오곡초교가 개교한 해인 1928년에 착안해 이름을 지었다. 이 공간은 도비 58억원, 군비 78억원 등 사업비 136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지난 2022년 11월 착공한 뒤 1년 6개월여 만에 준공했다.

이곳은 청년 창업 준비와 교육을 도울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곡성 대표 관광지인 기차마을과 장미공원, 침실습지 방문객을 곡성읍과 오곡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복합 문화시설로 꾸며진다. 건축학교와 숲놀이 학교 등 다양한 교육·행사를 운영해 곡성에 머물다 가는 생활인구와 체류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날 이곳이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터전이었다면 앞으로는 곡성 스테이션 1928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시 '디지털 트윈 기반 순천만 습지 조성 시뮬레이션 과제 착수보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순천만 습지 조성 디지털 기술 접목한다

### 시뮬레이션 사업 착수

순천시가 순천만 습지 조성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

순천시는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순천만 자연생태관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 순천만 습지 조성 시뮬레이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만 습지 조성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사업은 순천시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2024년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 조성'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된다.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10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상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정보 저장) 기반 구동형 모의실험을 통해 순천만 습지 조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해수 유동과 조위(해수면 높이)를 분석해 최적의 습지 조성 여건을 도출할 수 있다.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지형 고도와 군락, 시설물 지도를 최신회고하고, 수집된 실측 자료로 순천만 습지 관리 기틀을 마련한다.

순천시는 조위별 갯벌 변화 모의실험과 고정밀 드론 영상 등을 적용해 순천만 갯벌 가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순천만 습지 중장기 갯벌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 같은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의 갯벌 관리와 습지 조성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순천시 측은 기대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이지스, 순천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착수 보고를 하고 사업 대상지인 순천만 습지 일대를 둘러봤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순천만 조위, 지형에 맞는 수로를 개설해 물 흐름 정체를 방지하고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습지 조성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광양 유기농 매화' 원료로 만든 화장품 헝가리 첫 수출

### 매화수 화장품 3종 5만 달러 계약

광양시는 ㈜메사코사가 개발한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3종이 이탈리아에 이어 헝가리 화장품 판매 업체와 5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메사코사가 개발해 수출하는 '살베오'는 홀리스틱 뷰티 스킨케어 화장품 전문 브랜드로 광양에서 재배된 유기농 매화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매화수토너, 매화수세럼, 매화수크림 3종이다.

이번 화장품은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 비건 인증, 클린뷰티 인증, 유럽화장품 인증, 영국화장품 인증, 유아시아 인증까지 받은 100% 천연화장품으로 각종 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검증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사코사는 헝가리 업체와 지난해 10월 코트라 행사를 통해 만나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우수한 제품력으로 수출계약까지 이뤄지게 됐다.

북영역 메사코사 대표는 "2014년 봉강면 하조마을로 귀농해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 개발로 2019년 광양시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상품화 지원사업을 받아 매화수 화장품을 상품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화장품 제조업체 ㈜메사코사, 헝가리 화장품 판매 업체 대표 등이 헝가리 수출계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는데 성공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화장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각종 약초를 실생활에 쉽게 활용한 스킨케어 제품은 물론 에센셜오일과 식물성오일을 포함한 100여 종의 제품을 개발해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을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화엽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화수를 활용한 상품화에 이어 수출계약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제품생산과 수출개척에 앞장선 업체에 경의를 표한다"며 "귀농인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드론 700대·멀티미디어 불꽃, 녹동항·소록도 밤하늘 수 놓는다

### 30~6월2일 녹동바다 불꽃축제

700대 드론과 멀티미디어 불꽃으로 녹동항과 소록도 밤하늘을 수 놓는다

고흥군 녹동항 일원에서 오는 30일부터 6월2일까지 나흘간 '시차, 도전, 꿈, 희망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제22회 녹동바다 불꽃축제가 개최된다.

녹동바다 불꽃축제는 녹동청년회의소와 녹동JC특우회 주화·주관으로 개최되고 올해 스텔두 번째를 맞이했으며, 고흥 관광의 중심지인 녹동항

일원의 아름다움과 소록도가 갖고 있는 애환과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빛의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염원하는 700대의 드론과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더해져 녹동항과 소록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막식 행사로 ▲음의 승천 ▲인기가수 축하공연 및 트롯 쇼 ▲K-아트 페스타(댄싱, DJ 공연) ▲유&아이(YOU & I) 페스티벌 등 특색있고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 셋째 날에 펼쳐지는 고흥군 수협인 한마음 큰잔치에서는 ▲수산물 판매 장터 ▲녹동 바다 맛 시식회 ▲수협 보부상 ▲물고기 집기 체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오정철 축제추진위원장은 "소록도와 하나가 되고 고흥 녹동항만의 스토리가 있는 드론 쇼와 색다른 불꽃 쇼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찾아와 아름다운 추억 가득 담아가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여주시체육회

####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응원

여주시체육회가 28일까지 펼쳐지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여주시 선수단을 찾아 응원하고 있다.

'53회 전국소년체전'은 28일까지 나흘간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다. 여수에서는 13개 종목 87명 선수가 출전한다.

시체육회는 경기를 시작한 25일부터 전남 곳곳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다. 응원단은 명경식 여주시 체육회장과 전조일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2개 조로 꾸렸다.

여주시 선수단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이차수익금(500만원)과 후원금 모금액(300만원) 등으로 출전 경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다.

명경식 여주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여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이 '전국소년체전'을 치르는 여주시 수영 선수단을 찾아 응원하고 있다.

국의 우수한 청소년 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그간 갖고 뒀던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며 "여주시체육회에서도 우리 선수

들이 대회에 참가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여수 e스포츠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 7월 20~21일 흥국체육관서 개최

여수시가 7월 개최하는 '2024 여수시 e스포츠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한다.

페스티벌은 e스포츠 대회와 인플루언서가 함께하는 이벤트 경기 등 다양한 게임콘텐츠 체험 축제로 7월20일과 21일 이틀간 여수흥국체육관에서 열린다. 총 상금 1000만원 규모인 e스포츠 대회는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청소년부와

대학생 포함 일반부로 구분된다.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5인 단체전) ▲FC 온라인(개인전)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개인전, 일반부) 등이다.

오는 6월23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26일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29일부터 7월7일까지 매주 주말 온라인 예선전을 통해 결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경북상인연합회가 최근 광양5일시장을 찾아 선진 사례를 배우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광양5일시장 선진사례 배우러 왔어요"

### 경북 상인·공무원 120명 방문

경북지역 상인들이 광양5일시장을 찾아 선진 사례를 배웠다.

광양시는 경북상인연합회와 담당 공무원 120여 명이 최근 광양5일시장을 찾았다고 27일 밝혔다.

광양5일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특화상품 개발,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최근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디지털 전통시장에 선정된 광양5일시장은 전국 배움장을 확충하는 등 24시간 장이 열리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경북상인연합회는 해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진 사례 방문을 벌이고 있다.

광양5일시장에서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성과, 특화상품 개발, 협동조합 운영 등 등을 배웠다.

두 상인회는 각 지역 특산품인 경주쌍과 광양식 닭구이를 나눴다.

이영옥 광양5일시장 회장은 "광양5일시장은 백운산과 선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예로부터 다양한 특산품이 많은 시장"이라며 "잇따른 공모사업 선정 등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양5일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